

오피니언

월/요/광/장

곽수중



'일이 잘 풀리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다. 뚜렷하게 잘못 살아온 것도 없는데, 어쩌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듯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된다. 때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면, 전생을 들먹거리기도 한다. 어쨌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인과율'의 기본 원칙이다.

'동시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추상적이다. 어느 낯선 길을 걷다가도 언제가 한번 좁은 와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다. 일종의 '동시성'이다. '인과율'과 '동시성'을 더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은 운명처럼 이미 예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든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가 흠뻑 젖었다. 집사람은 캔자스주의 로렌스라는 곳에 있고 큰 애는 시카고에, 작은 애는 아이오와의 에임즈라는 곳에 살고 있다. 물론 필자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좋은 말로 글로벌 가족이라 할 수 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러기' 신세다. 필자도 아이들을 본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라, 이제 한뼘쯤은 다녀와야 할 때가 됐다 싶었다.

한창 짬을 때야 20시간이나 걸리는 여정이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인과율'과 '동시성'

가족을 찾아 나서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미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말도 심할할 겸 도착하면 아이오와, 일리노이, 그리고 미시간 주를 다녀올 작정이었다. 커다란 쇠덩어리가 활주로를 내달리더니 항공을 가로지른 후 저력과 아침이 반박되더니 시카고에 도착했다.

22여년 전 미국 유학을 처음 올 때 도착한 곳이 시카고였다. 파란 눈의 스튜디오스가 트림 아래에서 기다리는 동안 1월의 매서운 시카고 날씨를 맞으며 처음으로 미국의 법대를 맡았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일종의 '동시성'이다. 이민 가방 다섯 개를 짐사람과 끄고거리며 웃고 가 나

서는 한 일주일 아파 누워 있어야 했다. 긴장이 풀린 탓도 있지만 앞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했을 것이다.

슈퍼에서 물건을 담아 주는 종이 팩에 신문을 넣어서 이리저리 테이프로 붙이니 훌륭한 카펫이 되었다. 500달러짜리 자동차를 사는 바람에 추운 겨울날 시동을 걸 때마다 애를 먹기도 했다. 지금도 그때 차를 팔 아프리카 눈을 만나면 흥분 두들겨 패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3년 전 8년간의 미국 공무원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혼자 나올 때 내 인생의 주인

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전생에 한국에 왔던 인연이 있는 미국인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았던 사람이었나? 혼자서 자신과 자신 사이의 '인과율'에 대해 생각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짐사람과 아이들까지 이제 미국 땅에서 지내고 있으니 이들은 과연 '나의 인연'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인연 때문인가 하는 물음에까지 미치게 된다.

시간을 다시 잡아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큰 애를 임신한 짐사람과 몸 푸는 것을 도와주러 오신 모친을 모시고 10시간을 넘는 도로여행 끝에 지긋한 캔자스의 서쪽 정경에서 잠시 내려 다시

는 캔자스에 오지 않았노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며 사진까지 찍었다.

하지만, 결국 그곳이 나에게 제 2의 고향이 되고 말았다. 미국 생활 22년 가운데 17년을 캔자스에서 지냈으니 말이다. 마치 '인과율'과 '동시성'이 한꺼번에 만난 결과처럼 느껴진다.

1년 만에 만난 딸과 아들은 어른이 다 되어 있었다. 딸은 벌써 남자 친구를 소개한다면 아빠의 눈치를 살핀다. 대학에서 만난 어린 애들이 무슨 장난하느냐고 생각하다가는 나 자신이 대학 1학년 때 만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짐사람을 생각하니 이제 무슨 조화인가 싶기도 하다.

미국 백인 아이인 남자 친구는 내 눈치를 살피면서 여간 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아들 녀석도 미국 백인 여자 친구를 섭외 중에 있는 모양이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백인민족이자 우수한 단일 민족국가의 체통을 유지하려면 국제 결혼은 생각해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나 자신이 갖는 정체성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기억 나지는 않지만, 과거에 나 자신은 미국에 살았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가족을 갖게 된 것이라는 '인과율과 동시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경제학 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서남권 특별법 제정에 지역 역량 모으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이룰 '낙후지역발전 및 지역특별법(서남권특별법)'이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낙후지역개발촉진법'과 동시 심리를 요구하며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파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명분 없는 '발목 잡기'다. 서남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다. 환황해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국가 백년대계다.

반면, 낙후지역개발촉진법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여러 부처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낙후지역 지원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남권특별법과는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이를 두 법안의 동시 심리를 요구하며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원천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도 등은 17일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로 서남권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뚫겠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남권특별법 제정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기간 공약 사항이다. 한나라당 역시 호남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는 무엇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한나라당의 행태는 당리당락 차원의 치졸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서남권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해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통합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한나라당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지역민과 전남도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독서의 중요성 일깨운 빛고을독서마라톤

제 1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일보는 지난 15일 부문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지난해 9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독서마라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는 책 읽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시민독서운동이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경기를 독서에 접목시켜 책 1쪽을 1m로 환산해 완주 여부로 입상자를 가렸다. 부문도 가족 및 단체 풀코스과 하프코스, 무한도전 일반부 등으로 세분화했다.

성과는 매우 크다. 대회기간 학생 7천 807명, 일반 911명 등 8천718명이 참가해 학생 1천305명, 일반 242명 등 1천 547명이 완주했다. 입상자는 무한도전 완주자 2명을 포함해 개인부 26명, 가족 및 단체 12팀에 달하고 3개 학교, 가족 2팀, 단체 2팀이 특별상을 받았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흔히 사람은 책을 만들

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다. 책이 주는 감동과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참가자들의 소감도 다르지 않다. 4만 2천978쪽을 독파해 '독서행파인'에 오른 강명희씨는 책과 씨름하면서 인내심을 길렀고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재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시민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문화 형성과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독서 열기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독서량과 서적·인쇄물 구입비가 훨씬 낮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인터넷에 매달려 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는 올해 4~6월과 9~12월 두 차례 열린다. 시민들이 몰려 독서운동을 보다 확산시키길 기대한다.

無等鼓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12명의 배심원들이 앉아 있다. 이들이 심의할 사건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일급살인. 유죄의 증거는 명확했고, 피고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다. 배심원이 유죄결정을 내리면 푸에르토리코 이민자인 청년은 전기의자로 직행하게 된다.

첫번째 투표 결과는 11대 1. 유죄가 압도적 우위였다. 그러나 미국 형사재판에서 중죄의 유·무죄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청년의 유죄를 의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청년의 건축기사였다.

이 때부터 배심원들은 설득과 논쟁, 반전으로 이어지는 격론을 벌인다. 시간이 갈수록 절충성 같았던 살인의 증거, 권견과 예단이 무너져간다. 최후의 반대자가 유죄를 철회하는 순간, 12대 0으로 무죄가 확정된다. 시드니 루트 감독의 법정영화의 고전 '12명의 성난 사람들'(1957년 작)의 주요 내용이다.

배심제라는 법이 법률가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것이라는 상식에

서 출발한다. 진실은 토론을 통해 발견된다는 자유주의의 이상도 담겨 있다. 배심제의 원조는 영국과 미국이지만 그 연원은 깊다. 기원은 민주주의가 민중이 고대 그리스 페리클레스 시대와 고대 로마에서 비롯됐다.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한 것도 아테네의 배심원이었다.

스페인 프랑코 독재정권 때 폐지됐던 배심제를 민주정 회복 이후 부활시키고,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배심제를 폐지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도발 직전인 1941년 배심제를 폐지하면서 모든 배심제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제도에 따라 우리 사회상 첫 배심재판이 지난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이모(27)씨에 대해 배심원들은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높기만 한 법정이 시민의 눈높이와 같아지는 순간이었다

배심제라는 법이 법률가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것이라는 상식에

배심재판



기고

홍기술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고 한다.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사안이다. 근래에 나는 농촌진흥청과 색다른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 인연은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우리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농촌생활가이드 등 농촌진흥청이 제작한 다문화가족에 관한 각종 자료집을 지원해 주면서 교류는 지속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의 현장명예연구관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WTO, FTA 등 농업환경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농촌지역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다문화가족

을 리더하고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지니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사회에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인원은 그들이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즉 그들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행동화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노력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농촌진흥청은 이해관계나 경제논리를 떠나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

'농촌의 활력' 농진청 폐지 반대

의 등장이다. 최근 국내 결혼의 8성중 1성이, 결혼하는 농민어업 종사자들의 2명중 1명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국내 체류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10만을 넘어 서면서 도움을 막론하고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다.

농촌지역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농촌기피와 젊은이들의 이농으로 수 십년 동안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의 변화 속에서 농촌이 달라지고 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다문화가족 아이의 울음소리로 온 동네에 생기가 넘쳐나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농촌의 다문화가족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활력이 사라져가는 농촌사회에 이의 발전

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농촌진흥청이 폐지돼 민간기관으로 된다면, 필자와의 인연을 가져오게 했던 농촌생활가이드와 같은 책자들도 한 권당 적어도 4천~5천원의 로열티를 주고 구입해야 하고 농가 또한 마찬가지로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이 농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면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농업기반은 앞으로 어떻게 제공될 것인가?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목사골의 텃밭 겨울 들뜰을 바라본다. 저 밑에 희망의 봄기운이 태동하고 있는 지를...

<나주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장>

초등학교 주변 '불량 위험식품 전시장'

초등학교 앞은 온갖 '불량식품과 불량제품의 천국'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 앞이 가장 위험한 불량 위험식품의 전시장 이 되어버렸다.

얼마 전에는 아이 학교 준비물을 사러 학교 앞 문구점에 갔다가 처음 듣는 회사의 이상한 아이스크림이 팔고 있는 것을 봤다. '스크류 베리'라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었다. 유명한 제과회사의 상품인 '스크류베리'를 모방한 짝퉁 제품이었다. 혹시나 싶어 진짜 제대로 된 국산 스크류베리를 사서 비교해 봤더니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장

지 디자인이나 아이스크림의 형태 등이 똑 같았다.

그것을 사먹는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싸고 맛있어서 친구들이 거의 다 사먹는다고 불량식품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값이 100~200원으로 저렴하니 초등학교생들에게 인기가 끌고 있지만 그 성분이나 제품의 안전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짝퉁이다보니 유해 색소나 성분이 얼마나 어떻게 첨가됐는지 알 길이 없다.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한 문구점에서의 식품류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성성2동

법조 칼럼

최은식



IMF 이후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면서 매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성실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리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준 보증 등으로 고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량한 채무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가 재기의 발판이 되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인식되어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당시 신용불량자 대사관 공약을 발표했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채무자들의 실질

/3 이상의 채권자들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과 신청 실의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로서도 액면이야 어떻든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채권보다는 회생계획에 의해 조급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부도나 파산절차로 가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을 다해 제시하는 변제계획에 대부분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도산법에는 '기존경영자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 신청자격을 주식회사에 한정

기업 회생제도 적극 이용하길

적인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면이 많아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대체할 만한 수준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변제비율이 90%를 훨씬 웃돌고 있는 현재로서 고액 개인채무자나 신용불량자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외에 다른 구제수단을 찾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이렇듯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널리 인식이 되어 그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법인)회생은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이용이 저조하다.

기존의 회회법·회사정리법·파산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통합도산법으로 단일화되어 이 법에 규정된 기업(법인)회생제도는 채무위에 처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채무액을 조정 받아 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총 채권액 기준으로 2

하지 않고 일반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 노력은 파산절차에서나 흑자나 흑자지 모르는 수표부도도 인한 형사 절차에서도 그 처벌을 면하거나 정상장착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인식부족으로 회생가치가 충분한 기업을 부도상태로 방치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임은 물론 채권자로나 수많은 피용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 기업경영자 개인도 평생 재기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악화 상태에 처한 기업경영자들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계속해 결국 도산 상태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기업(법인)회생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을 것이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변호사>

병원 특제제품 광고 부착 자제를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갔다. 아이가 진료받는 사이 병원 내부를 둘러 보았는데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은 비누와 화장품'이라는 안내와 함께 제품이 전시돼 있었다. 그 이름을 적어다가 구입한 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 사용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별 효능이 없었다. 병원에 전화해 물어 그 비누와 화장품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자 직원은 그런데 모든 증상이 다 잘 듣는 것은 아니라며 효과가 없으면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직원의 말이 틀린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찜찜했다. 병원에서 특정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전시해 놓은 물건이라면 환자나 그 가족들은 대부분 병원을 믿고 그 제품을 쓸 것이다. 그러나 그 제품이 효능이 없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쓰인다면 병원에 들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병원이 특정 제품을 광고해서야 되겠는가.

의료기관에서의 이 같은 일반 기능성 제품에 대해 전시·홍보 효과를 못하게 해야 한다.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